논어 9편 자한 5장 · 원문·풀이

子畏於匡。曰：「文王既沒，文不在茲乎？天之將喪斯文也，後死者，不得與於斯文也。天之未喪斯文也，匡人其如予何？」

독음 · 자외어광 왈 문왕기몰 문부재자호 천지장상사문야 후사자 부득여어사문야 천지미상사문야 광인기여여하

쉬운 풀이(요약) · 광 땅에서 위협받을 때 공자는 자신이 문왕의 문화를 잇는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두려움을 이겨 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畏 두려울 외 외 / 於 방향의 어조사 어 어 / 匡 바룰 광 광

曰 가로 왈 / 文 무늬 문 문 / 王 임금 왕 왕 / 既 이미 기

沒 가라 앉을 몰 몰 / 不 아닐 불 / 在 있을 재 재 / 茲 무성할 자 자

乎 어조사 호 / 天 하늘 천 천 / 之 갈 지 / 將 장차 장 장

喪 죽을 상 상 / 斯 이 사 사 / 也 어조사 야 / 後 뒤 후 후

死 죽을 사 사 / 者 놈 자 / 得 얻을 득 득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

未 아닐 미 미 / 人 사람 인 / 其 그 기 / 如 같을 여 여

予 자기 여 여 / 何 어찌 하 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